

一 하니 저희가 다시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
 二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거늘 빌라도가 무리를 안둔케
 三 하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니라 군사들이 예수
 四 를 끌고 마당안에 들어가니 곧 공상마당이라 이에 온 영문물을 모으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
 五 씌우고 문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도 뱉으며 꿇어질
 六 하고 희롱하기를 다하며 홍포를 벗기고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어가니라 구레네
 七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 시골로서 오는 길에 그곳으로 지나갈새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
 八 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번역하면 해골곳이라 포도주에 물약을 타서 주거늘 예수 반지
 九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
 一〇 박으니 때가 오전 아홉시라 그 위에 있는 명패에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고 또 강도 둘을 예수와
 一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도 기롱하고 머리를 흔
 一二 들며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자여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
 一三 고그와 같이 제사제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몸은 구
 一四 원치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금 보고 믿게 하라 하
 一五 고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유하다라 오정으로부터 오후세 시까지 온 땅이 어둡더니 오
 一六 후 세 시에는 예수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사바다니라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
 一七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함이라 결에 섰던 몇 사람이 듣고 가로되 엘리야를

一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빨리 가서 해운을 초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
 二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니 예수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시니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
 三 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의 앞에 가까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
 四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영이들도 멀리 있어 바라보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작은
 五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좃아 섬
 六 기던 자요 또 다른 여인도 많이 있으니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라 이 날은 예비하는 날 곧
 七 안식일 전날이니 이미 저물 때에 이르러 마리아와 요셉이 왔으니 이 사람은 존귀한 의관이요 또 하나님의 나
 八 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며 예
 九 수께서 벌써 죽은가 하여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
 一〇 내어주거늘 요셉이 배를 사고 시체를 내려다가 베로 싸서 반석 속에 관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
 一一덤문에 놓으매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체 둔 곳을 보더라

一六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축을 사가지고 와서
 二 예수께 바르려 하여 칠일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니라 그때에 서로 말하되 누가
 三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다가 바라본즉 돌을 벌써 굴러놓았으니 그들이 심히 큰
 四 지라 무덤에 들어가 한 소년이 흰옷을 입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소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
 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혔던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시체 두었던
 六 곳을 보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